

뚜렷한 양적 성장 증명한 한해

출판집계 '94출판통계... 다품종 소량생산 뚜렷

판매불황으로 허덕였던 출판계의 지난해 신간 발행량은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김낙준) 집계에 따르면 지난 한해(94.1.1~12.31) 동안 총 2만9564종의 신간이 1억5232만 6103부가 발행돼 93년에 비해 발행종수는 12.3%, 발행부수도 9.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또 10년전인 84년의 1만9113종 6995만 1225부의 신간 발행량에 비해 각각 약 155%와 약 218%의 놀라운 증가율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출판산업의 양적인 성장을 수치로 증명해 준다.

기술실용서의 뚜렷한 증가

신간 가운데 기술과학류는 93년에 비해 무려 30.1%의 증가폭을 나타내 최근 컴퓨터 이용인구의 급속한 확산을 반영해주고 있다. 이는 「저는 컴퓨터를 하나도 모르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글 2.5」 등 컴퓨터 사용법이나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다룬 실용서들이 판매호조를 이룬 것과 맞물리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또 '세계화' 추세에 따른 외국어 실용서 수요층이 늘어남에 따라 어학분야의 신간도 15.5% 증가했으며 대학입시의 출제경향 변화에 따른 각종 논술대비서들의 경쟁적인 출간으로 학습참고서류도 15.2%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밖에도 사회과학, 문학, 예술, 순수과학 분야의 책들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편. 전체적으로는 철학(6.9%) 역사(4.5%) 등 인문 분야의 신간 증가율은 저조한 반면 어학·기술 등의 실용서 부문은 강화되는 추세를

▲ : 감소 표시

1994년 출판 통계

기간 : 1994. 1. 1~12. 31

	신간 발행 종수				신간 발행 부수				평균 부수		평균 정가		평균 면수	
	1994	구성비	1993	증감률	1994	1993	구성비	증감률	1994	1993	1994	1993	1994	1993
총 류	283	1.0	350	▲19.1	551,760	1,915,920	0.4	▲71.2	1,949	5,474	20,183	11,211	434	316
철 학	727	2.5	680	6.9	3,046,230	1,912,748	2.0	59.2	4,190	2,812	6,665	6,704	282	298
종 교	1,941	6.6	2,040	▲4.8	5,468,419	5,910,154	3.6	▲7.4	2,817	2,897	5,701	4,987	270	258
사회과학	3,539	11.9	3,106	13.9	5,735,373	5,297,856	3.7	8.2	1,620	1,705	11,638	10,736	418	418
순수과학	463	1.6	420	10.2	1,231,356	759,870	0.8	62.0	2,659	1,809	12,112	11,797	340	322
기술과학	3,887	13.1	2,986	30.1	5,072,864	3,717,244	3.4	36.4	1,305	1,244	12,798	11,948	385	382
예 술	1,314	4.4	1,173	12.0	3,751,570	3,504,162	2.5	7.0	2,855	2,987	11,641	11,854	204	218
어 학	1,321	4.5	1,143	15.5	5,217,826	3,958,630	3.4	31.8	3,949	3,463	10,983	8,734	310	293
문 학	6,053	20.4	5,336	13.4	14,665,134	13,741,553	9.6	6.7	2,422	2,575	5,087	4,950	289	287
역 사	966	3.3	924	4.5	2,002,849	2,397,170	1.3	▲16.4	2,073	2,594	9,251	9,834	334	301
학습참고	4,710	16.0	4,085	15.2	87,936,300	84,376,967	57.7	4.2	18,670	20,655	4,760	5,075	146	157
아 동	4,360	14.7	4,061	7.3	17,646,422	11,729,450	11.6	50.4	4,047	2,888	7,307	6,628	109	96
계	29,564	100.0	26,304	12.3	152,326,103	139,221,724	100.0	9.4	5,152	5,292	8,185	7,591	267	260

자료 : 대한출판문화협회

를 보여준다.

반면 기초서적이라 할 총류는 19.1%의 감소를 보여 각 분야의 기간도서에 대한 출판계 관심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발행종수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야는 역시 독자층이 두터운 문학도서로 20.4%를 차지한다. 지난해 소설 시 분야에서 조메스트셀러를 배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 다음으로 많은 종수를 기록한 분야는 역시 학습참고서류와 아동 기술서적의 순으로 이들 신간이 전체의 64.2%를 차지, 여전히

출판의 편중된 분포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분포는 발행부수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습참고서(57.7%)와 아동(11.6%)도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대로 철학(2.0%) 순수과학(0.8%) 예술(2.5%) 역사(1.3%) 등 교양학술분야는 모두 합해서 전체 발행부수의 10% 미만만 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 발행부수는 전년대비 1.9%에 비해 뚜렷한 증가를 나타내지만 1종당 평균부수는 5152부로 오히려 2.6%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다품종소량판매의 출판조짐을 더욱 가시화하고 있다. 독자들의 다양한 지적욕구를 반영하

기 위한 기획출판의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점점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만화출판의 상승세 조짐

94년 출판통계 가운데 특기할 부문은 만화다. 지난해 총 4930종 발행된 만화는 전년대비 6.1%의 증가를 보이는 동시에 전체 발행부수의 6.6%를 차지하는 1082만 7510부를 발행, 학습참고서와 아동, 그리고 문학류를 제외하면 단연 많은 비율로 자리하고 있어 만화출판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 번역도서의 경우 지난해 총 5358종의 의

■ 십팔사략(十八史略)이란?
중국의 정사 26종 중 사마천의 사기(史記)에서 탁극의 송사(宋史)까지 18가지의 정사를 원나라 때 증선지가 십팔사략으로 요약한 책.

지금, 4천년 중국 역사의 주역들이
고우영의 유머와 해학속에 다시 태어난다.

고우영 만화 십팔사략



중국 역사중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사료와 인물들은 총망라하여 뛰어난 경영전략, 인생지략은 물론 삶의 철학과 깊이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총 10권의 고우영 대하 만화소설—만화십팔사략!
- ① 삼황오제에서 서주(西周)까지 ⑤ 후한(後漢)시대
- ② 춘추(春秋)시대 ⑦ 삼국(三國)시대
- ③ 전국(戰國)시대 ⑧ 남북조(南北朝)시대
- ④ 시황제(始皇帝)의 천하통일 ⑨ 당(唐)의 흥망
- ⑤ 함유(項羽)와 유방(劉邦) ⑩ 북송(北宋) 남송(南宋)시대
- 총 10권 중 ① ② ③ 권은 절친리 판매중!

동아출판사
☎ 861-4818

“해방 50년은 출판 50년”

현암사 비롯 다채로운 기념행사 마련



지난 1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현암사의 50주년 기념사업 설명회.

현암사, 을유문화사, 탐구당, 학원사, 동아출판사 등 5개 주요출판사가 창업 50주년을 맞는 올해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해서 독자들에게 다가간다.

1945년 12월 대구에서 월간종합지 「건국공론」을 창간한 현암사(설립자 조상원, 대표 조근태)는 창업 50주년을 맞아 지난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제2의 창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올해의 기념행사를 발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암사는 ‘현암저술상’을 공모하기로 했다. 현암저술상은 수상록 에세이를 제외한 학문 전 분야에 걸쳐 단행본 분량의 원고를 오는 6월까지 모집해 수상자 1편당 5백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와함께 「건국공론」 「법전」 등 현암사가 발행한 10종의 도서 초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년에 발간하는 현암사의 책을 무료로 증정한다. 또한 ‘새로운 삶의 비전—21세기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3월 17일부터 매월 1회씩 10회에 걸쳐 저명인사 초청 시민

강좌 및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공모와 강좌 이외에도 환경생태사진전, 환경생태답사 여름캠프, 독일을 포함한 유럽을 자전거로 여행하는 ‘독일 동화자전거 여행’을 기획하고 있다. 현암사의 모든 책 표지 날개에 붙어 있는 창업 50주년 기념사는 추천권을 오래 보내는 독자들에게는 사은품도 증정한다.

을유문화사(대표 정진숙)는 「우리말 큰사전」, 「한국사」를 비롯해 문고본의 전형으로 평가받는 ‘을유문고’ 등을 펴내면서 한국 출판계의 일가를 이루었다. 을유문화사가 창립일인 12월 중에 펴내는 사사(社史)는 한국출판계의 역사를 보여주는 기획물로 기대되고 있는데, 이밖에도 다양한 기념행사를 마련해 창사 50주년을 독자와 함께하기로 했다.

국사편찬위원회와 「조선왕조실록」 등의 사료를 출판한 탐구당(대표 홍석우)과, 잡지출판의 대명사인 학원사(대표 김영수), 동아출판사(대표 김현식)도 창업 50주년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성수 기자

지난해는 신간발행량의 양적인

성장을 보여준 한해였다. 그 가운데

기술과학류는 전년대비 30.1%의

증가를 나타내 최근 컴퓨터 이용인구의

급속한 확산을 반영해주고 있다.

또 ‘세계화’ 추세에 따른 외국어 실용서

수요층이 늘어남에 따라 어학분야의

신간도 증가했으며, 각종 논술대비서의

경쟁적 출간으로 학습참고서류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국책이 번역출간됐다. 분야별로는 문학류가 1938종으로 국내 문학도서(6053종) 가운데 32%나 차지, 번역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도서의 번역서(774종) 비율도 높아 이 분야의 국내 기획물 부족의 현실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지난해 책값은 한권당 평균 8185원이어서 93년에 비해 7.8% 올랐다. 책의 두께도 지난해보다 6면이 늘어난 267면의 두께를 지닌 것으로 나타나, 1페이지당 평균 제작비는 30.6원꼴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9월말까지의 전국 출판사수는 9788개사로 하루평균 18개사가 새로 등록되는 수치로 계산하면 연말까지 1만개사를 넘을 것으로 잠정 추측되고 있다.

100평 이상 중대형 서점의 증가도 뚜렷한 추세를 보여 지난해 모두 17개점이 새로 문을

열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서점경영연구원 제공)

서울에서는 상계동의 교원문고(100평) 청량리 성현문고(150평) 신림동의 신림문고(300평) 용산구의 양지문고(180평) 목동 중화문고(100평) 가양동의 한서문고(200평) 등 모두 6곳이 개설됐는가 하면, 인천지역에 대한서림(120평) 부평문고(200평) 한겨레문고(200평) 등 3곳, 부산에 금정월드북(100평) 문창문고(200평) 온천문고(100평) 등 3곳, 경기도에 수원외 경기서적(200평) 안산의 대동서적(200평) 안양의 안양문고(200평) 일산의 일산문고(100평) 등 4곳, 그리고 광주에 호남권 최대의 서점으로 문을 연 일신문고(500평)를 비롯해서 전국·각 지역에서 중대형서점들이 깔끔히 단장한 모습으로 문을 열어 서점매장의 확장이 꾸준히 추진되는 현상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형서점들이 속속 개점한 것과는 별개로 대형서점의 판매량은 93년에 비해 다소 둔화돼 예년의 증가율(15~20%)을 밑돌았다는 잠정집계다.

급변하는 흐름 속의 문화

CA 반퍼슨 지음/강영안 옮김/320면/9,000원

우리가 함께 구상해야 할 미래 문화에 대한 철학적 전망을 담고 있는 문화 철학서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사물 인식과 가치 판단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문화를 주관을 가지고 통찰할 수 있는 시각을 길러 준다.

막스 베버: 사회학적 사유의 길

HN 퓨겐 지음/박미애 옮김/208면/5,000원

마르크스, 프로이트, 니체와 더불어 20세기의 사상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독일 학자 막스 베버의 생애를 담고 있는 전기물. 주위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 관련 사진 등이 생동감 있는 책읽기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인식론(수정판)

J. 해센 지음/이강조 옮김/224면/5,500원

인식론 일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개설서로 역사적 맥락에서 체계적으로 서술되었다. 시대와 그 시대를 지배한 사상과의 상호 연관 관계를 중심축으로 전개되는 이 책은 사상은 시대의 아들이라는 명제에 철저하게 따르고 있다.

토미스트 실재론과 인식 비판

E 질송 지음/이재룡 옮김/256면/6,500원

단일 학파 또는 조류로서는 현대의 가장 지배적인 학파를 형성했던 신-토미즘(Neo-Thomism)의 중심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은 토미즘 인식론 분야의 학문적 완성도를 측정하는 시금석으로 평가받고 있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0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대표전화 924-6161 팩시밀리 922-4993